

광주FC 이정호 감독 ‘수중전 승부수’ 통했다



K리그1 28라운드 제주 원정경기 1-0 짜릿한 승
폭우 쏟아지자 박인혁 투입 ‘선 굵은 전술’ 펼쳐
박인혁 결승골 ‘화답’ ...안영규 ‘300경기 출장’

이정호 감독의 ‘승부수’가 적중했다.

광주FC는 지난 30일 제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박인혁의 페널티킥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 진행된 수중전에서 승리를 이끈 이정호 감독은 “도박이었다”며 이날 경기를 돌아봤다.

광주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정지훈을 빼고 장신 공격수 박인혁을 투입했다. 이 장면이 이정호 감독이 이야기한 도박이었다.

이정호 감독은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7일 부천FC와의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을 코앞에 두고 아사니가 전력에서 빠졌다. 이적 논란 끝에 아사니가 시즌 중반 이란으로 떠나면서 ‘에이스’ 없이 코리아컵 결승 진출과 리그 상위 스플릿 도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정호 감독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느낌”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광주는 스쿼드 약점 속에서도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일단 광주는 부천과의 코리아컵 2차전에서 조성권과 신창무의 골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 사상 첫 결승행에 성공했다.

이정호 감독은 제주와의 경기에 앞서 “다행히 리그가 다 끝난 후에 코리아컵 결승을 하게 된다. 뭐라도 하나 붙잡고 가는, 선수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있다.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주 좋은 이벤트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리아컵 결승행의 미를 설명했었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핵심 전력까지 이탈했지만 이정호 감독과 광주에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승리였다.

제주전은 광주의 가을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였다. 스플릿라운드까지 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4점 차로 광주를 쫓고 있던 제주와의 승부, 3일 만에 치르는 경기였던 만큼 광주의 로테이션과 전술에 시선이 쏠렸다.

이정호 감독에게는 박인혁이 승부수였다.

이정호 감독은 “분석팀과 많은 고민을 했다. 아사니가 이적을 해서 다른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다. 잉어를 봐왔던 선수라서 박인혁에게 잉어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주로 나섰던 박인혁은 새로운 자리에서 부지런히 뛰면서 공격 기회를 노렸다. 날씨도 박인혁을 킬레이어로 만들었다.

이날 경기 전반 막바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내 그라운드에 물이 고이면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정호 감독은 하프타임 때 ‘선이 굵은 승부’로 전술을 바꿨다. 수중전에 맞춘 플레이를 하다가 그라운드에 물이 빠지면 준비한 세밀한 광주 축구를 하는 게 감독의 전략이었다.

이 전략에 맞춰 장신 공격수 박인혁은 선 굵은 플레이, 수중전에 따른 체공권 싸움의 킬레이어가 됐다. 결과는 적중했다.

0-0으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문민서의 크로스를 받은 박인혁이 머리로 공을 넘겼고, 골대 왼쪽에 있던 헤이스가 슈팅을 시도하려다가 상대 반칙에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이다.

또 다른 도박은 ‘페널티킥’이었다.

사실 이정호 감독은 문민서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키퍼로 나선 이는 박인혁이었다.

이정호 감독은 “하승운이 킥을 잘 친다고 추천했다. 박인혁의 눈이 반짝인 게 처음이었다”면서 박인혁에게 역할을 맡긴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 있다”며 여필한 박인혁은 승리를 완성하는 결승골을 작성한 뒤 눈물을 흘렸었다.

에이스의 이탈, 강행군 그리고 폭우라는 변수까지 겹쳤지만 이정호 감독은 제주전을 승리로 이끌고 기분 좋은 A매치 휴식기를 맞게 됐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안영규가 후반 33분 하승운을 대신해 교체 투입되면서 3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그는 100경기, 200경기에 이어 300경기를 모두 광주에서 이룬 첫 선수가 됐다.

/제주=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30일 제주SK FC와의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뒤 안영규의 300경기 출장을 축하하는 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3연승으로 U-23 아시안컵 본선 간다”

이민성호, 예선 출전 위해 출국

“짧은 훈련 기간이었지만 3승으로 본선에 나서겠습니다.”

이민성(사진)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9월 3~9일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 3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선발대가 출발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9월 1일 출국한다.

유일한 해외파인 수비수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는 인도네시아에서 합류한다.

이민성호는 이번 U-23 아시안컵 예선 조별리그 J조에 속해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의 글로라 델타 스타디움에서 마카오(9월 3일 오후 5시 30분), 라오스(9월 6일 오후 5시 30분), 인도네시아(9월 9일 오후 9시 30분·이상 한국시간)와 차례로 맞붙는다.

44개 팀이 4개 팀씩 11개 조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예선에선 각 조 1위 팀(11개 팀)과 2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을 합쳐 총 15개 팀이 U-23 챔피언십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본선에 나선다.

지난 5월 U-22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이민성 감독은 출국에 앞서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대표팀 감독에 부임한 이후 첫 공식 대회를 나가는 만큼 설레는 마음도 있다. 선수들과 합을 잘 맞춰서 좋은 성과를 내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 목표에 대해 “발을 맞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전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뽑았다”며 “3승으로 본선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선 상대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팀은 단연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4월 카타르에서 펼쳐진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을 꺾었고, 당시 패배로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업 달성에 실패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웅 울산 HD 감독이 지휘했다.

이민성 감독은 이에 대해 “상당히 좋아진 팀이라서 경계하고 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 있다”며 “계속 경기 분석을 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임 후 첫 대회에 나서는 소감을 묻자 이 감독은 “동남아 팀들의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더 좋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정지훈’ 알리고 오겠다”

광주FC 미드필더 정지훈

3일부터 U-23 아시안컵 예선

“출전 기회 느니 자신감 생겨”

“제 이름 남기고 오겠습니다.”

광주FC의 미드필더 정지훈이 태극마크를 달고 또 다른 어필 무대에 나선다.

그는 최근 발표된 남자 U-22 축구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예선 무대에 오른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위치한 겔로레 델타 시도아르조 스타디움에서 3일 마카오, 6일 라오스, 9일 인도네시아와 맞붙는다.

27일 부천FC와의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 출장했던 정지훈은 30일에는 폭우 속 제주전까지 뒀 뒤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무더위 속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정지훈은 밝은 표정으로 대표팀에 가는 소감을 밝혔다.

정지훈은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어느 정도 결과가 따라오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시즌 초반 그라운드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던 정지훈은 지난 6월 18일 제주원정에서 팀의 1-0 승리를 이끈 결승골을 작성했다. 3년 차에 기록한 프로 데뷔골이었다.

침묵을 갠 정지훈은 경기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위기의 광주에 새로운 전력이 됐다.

정지훈은 지난 20일 부천과의 코리아컵 준결



광주FC의 정지훈이 U-22 축구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승 1차전에서 심상민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장식하는 등 2-0 승리를 이끌었다. 27일 진행된 2차전 승부에서는 조성권의 선제골을 도우면서 구단 첫 코리아컵 결승행의 주역이 됐다.

대표팀 합류에 앞서 반전의 무대가 됐던 제주에서 다시 한번 팀 승리에 함께 한 정지훈은 “경기 더 잘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팀 결과 좋아서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이어 정지훈은 “경기를 자주 못 나가고 조금씩 뛴 때는 뭘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컸다. 어느 정도 뛰면서, 자주 경기에 나갔다 보니

까 조금은 차분해진 것 같다. 차분해지면서 좋은 경기력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고 선수환이 되는 것 같다”며 “경기장에서 불을 많이 잡다 보니까 불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팀에서 입지를 넓힌 정지훈은 대표팀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

정지훈은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기도 하다. 좋은 선수들 많이 오니까 배울 점은 많이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보여줘서 대표팀 감독님이 저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주=김여울 기자 wool@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